선진경제실 미주팀

(중남미)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10.15

1. 확산 동향

□ 중남미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특징

○ 중남미지역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

– 콜롬비아, 누적 확진자 90만 명 돌파(10.10)

– 아르헨티나, 일일 신규 사망자 기록(485명) 경신(10.8)

· 수도권에서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90만 명 돌파(10.12)

– 멕시코, 누적 확진자 80만 명 돌파(10.8)

· 10월 5일 신규 확진자(28,115명) 및 사망자(2,789명)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이래 집계되지 않았던 사례가 포함된 결과

· 즉 멕시코의 코로나19 관련 통계가 진단 부족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함을 나타냄.

□ 10월 15일 현재 중남미지역 확진자는 10월 8일 대비 4.0% 증가한 1,019만 8,944명, 사망자는 3.2% 증가한 373,058명 기록

○ 10월 15일 기준 확진자의 전세계 비중(26.5%) 및 사망자 비중(34.2%)은 10월 8일 보다 감소

표 1. 중남미 국별 코로나19 대유행 현황(2020.10.15, pm 13:24)

국가[1)]	확진자(명)	사망자(명)	최초발생일	특징[2)]
브라질	5,140,863	151,747	2020.02.26	– 감소세
멕시코	830,502	84,898	2020.02.28	– 감소세
에콰도르	149,083	12,264	2020.02.29	– 감소세
도미니카(공)	119,662	2,186	2020.03.01	– 감소세
아르헨티나	931,967	24,921	2020.03.03	– 감소세
칠레	485,372	13,415	2020.03.03	– 현상 유지
코스타리카	91,780	1,134	2020.03.06	– **증가세**
콜롬비아	930,159	28,306	2020.03.06	– **증가세**
페루	83,974	33,419	2020.03.06	– **증가세**
파라과이	51,845	1,131	2020.03.07	– 현상 유지
파나마	122,128	2,519	2020.03.09	– 감소세
볼리비아	139,131	8,377	2020.03.10	– 감소세
자메이카	7,989	151	2020.03.10	– 감소세
온두라스	84,852	2,528	2020.03.11	– 현상 유지
쿠바	6,035	123	2020.03.11	– 감소세
가이아나	3,589	106	2020.03.11	– **증가세**

국가[1]	확진자(명)	사망자(명)	최초발생일	특징[2]
SVG	64	0	2020.03.11	
T&T	5,154	93	2020.03.12	- 감소세
베네수엘라	85,005	714	2020.03.13	- 현상 유지
우루과이	2,388	51	2020.03.13	
안티과 바부다	112	3	2020.03.13	
세인트루시아	31	0	2020.03.13	
과테말라	99,094	3,430	2020.03.13	- 감소세
수리남	5,083	108	2020.03.13	
바하마	5,191	109	2020.03.15	- **증가세**
바베이도스	203	7	2020.03.17	
엘살바도르	30,766	904	2020.03.18	- **증가세**
니카라과	5,353	154	2020.03.18	- 주 1회(화) 공식통계 발표 - 감소세
아이티	8,908	231	2020.03.19	- 감소세
도미니카	32	0	2020.03.22	
그레나다	25	0	2020.03.22	
벨리즈	2,585	40	2020.03.22	- 감소세
SKN	19	0	2020.03.24	
33개국 총계	**10,198,944**	**373,058**		

주: 1) 확진자 발생 시기 순, 2) 최근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추세.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2. 경제적 영향

□ 중남미

○ World Bank, 2020년 지역성장률 -7.9% 전망(10.9)[1]

- 세계은행은 중남미지역을 보건(전세계 사망자의 33%) 및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평가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7.1%)보다 더 악화된 -7.9%로 추정한 보고서[2]를 발표

  · 경제적으로는 대외수요 감소, 국별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 관광산업 붕괴, 봉쇄 장기화에 따른 생산·소비·투자 등에서의 위기 등을 지적

- 성장률이 가장 악화될 국가로는 관광산업 의존성이 높은 카리브해 도서국들인 세인트루시아(-18%), 벨리즈(-17.3%), 바하마(-14.5%), 수리남(-13%)과 멕시코(-10%)가 손꼽힘.

  · 경제 규모가 다소 큰 남미지역 국가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역성장이 전망되는데, 다년간 경제위기 상황인 아르헨티나(-12.3%)를 비롯해 콜롬비아(-7.2%), 칠레(-6.3%), 브라질(-5.4%)의 저성장도 불가파할 전망

1) América Economía(2020.10.9), "Banco Mundial empeora las previsiones para Latinoamérica: estima una contracción del PIB del 7,9%,"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검색일: 2020.10.12).
2) ILO(2020.9.23), *ILO Monio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ixth edition,*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55910.pdf(검색일: 2020.9.25).

· 이외 에콰도르(-11%), 볼리비아(-7.3%), 코스타리카(-5.4%), 도미니카공화국(-4.3%), 우루과이(-4%), 파라과이(-3.2%), 아이티(-3.1%) 등 중규모 국가들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

· 한편 대규모 유전개발이 본격화된 가이아나는 유일하게 고성장(23.2%) 달성 기대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향후 다년간 지속되어 지난 3년간 저성장(2017년 1%, 2018년 1.4%, 2019년 0.2%)을 기록한 중남미지역의 사회적 지표악화와 함께 2019년 10월의 칠레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할 전망

· 코로나19의 실제 경제적 영향이 초기 추정치보다 덜 악화하고, 세계상품무역의 회복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상승 전망 등을 예상하여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4%로 상향 조정

·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세인트루시아 8.1%, 페루 7.6%, 벨리스 7.4%, 가이아나 7.8%, 아르헨티나 5.5%, 콜롬비아 4.5%, 칠레 4.2%, 멕시코 3.7%, 브라질 3%, 수리남 1.5%, 아이티 및 니카라과 각 1.1% 등임.

○ IMF, 2020년 지역성장률 -8.1% 전망(10.13)[3)]

–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4)]에서 선진권 및 중국 경제 개선에 기초한 세계경제 회복 전망 영향으로 중남미지역의 2020년 성장률도 6월(-9.4%)보다 높은 -8.1%로 예측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화되는 지역이 될 것이고, 경제대국인 멕시코(-9.0%)와 브라질(-5.8%)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전망

· 소지역별로는 남미 -8.1%, 중미 -5.9%, 카리브지역 -5.4% 각각 기록 전망

· 가장 취약한 국가군에는 페루(-13.9%), 아르헨티나(-11.8%), 에콰도르(-11.0%)가, 다음으로는 콜롬비아(-8.2%), 볼리비아(-7.9%), 칠레(-6.0%)가, 마지막으로는 다소 선방하는 국가에는 우루과이(-4.5%)와 파라과이(-4.0%)가 포함

· 대규모 유전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이아나(26.2%)와 장기 침체중인 베네수엘라(2020년 -25.0%, 2021년 -10.9%, 2020~21년 물가상승률 6,500%)는 예외적

· 한편 2021년 지역성장률은 6월(3.7%) 전망치보다 다소 둔화(3.6%)될 것으로 전망

---

3) América Economía(2020.10.13), “El FMI mejora sus previsiones para el PIB de América Latina a 8,1%: Perú y Argentina los más afectados,”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검색일: 2020.10.14).

4) IMF(2020.10),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 멕시코

○ 경제회복 과정, 지난하고 장기적일 것으로 전망(10.8)[5]

– 중앙은행(Banxico)은 9월 24일 개최한 월간 통화정책회의 결과(Minuta de Banxico)를 발표하면서 경제가 지난하고 장기적이며 불안정속에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이를 반영하듯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25%로 0.25% 포인트 인하했음.

· 물가상승률(연율)은 비록 중앙은행 기준치(4%)보다는 높은 4.01%(9월)를 기록했지만 8월(4.05%)보다는 하락

–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20년 -8%에서 2021년에는 4.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 1,500만 명 빈곤층 추가 발생 전망(10.8)[6]

– 제툴리오바르가스재단(FGV) 보고서[7]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시행중인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연말 종료되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에 1,5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

· 소득이 월 최저임금(515헤알, 92달러)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소득 지원(대유행 직후 월 600헤알에서 10월부터 연말까지 300헤알로 축소 지급된 후 만료 예정) 영향으로 23.7% 감소한 상황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득지원정책으로 지지도가 상승하자 2021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의회와 경제팀(게지스 경제부장관)은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으로 연말까지 3,218억 헤알(576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임.

---

5) América Economía(2020.10.8), “"Difícil, prolongada y sujeta a incertidumbre": así será la recuperación económica de México, según Banxico,”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 (검색일: 2020.10.12).

6) FGV(2020.10.8), “Covid, Classes Econômicas e o Caminho do Meio: Crônica da Crise até Agosto de 2020,” https://cps.fgv.br/pesquisas/covid-classes-economicas-e-o-caminho-do-meio(검색일: 2020.10.12).

7) Marcelo Neri(coordenação)(2020.10), *Covid, Classes Econômicas e o Caminho do Meio: Crônica da Crise até Agosto de 2020,* FGV Social(http://www.fgv.br/cps/CoviClasses.

3. 지역/정부의 대응

□ 방역 대책

○ 아르헨티나

– “더욱 엄격한” 신규 봉쇄조치 시행 발표(10.9)[8)]

·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일 신규 사망자 기록이 경신(10.8)되자 10월 12일부터 2주 동안 발효되는 18개 州의 인적 인동 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수준의 신규 봉쇄조치를 발령

· 10월 8일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누적 확진자는 856,359명, 일일 신규 사망자 경신(48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710명을 기록

· 전국 병상 점유율(63%)과 최대 감염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병상점유율(63.3%), 그리고 최근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위기단계 상향 조정만이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간주

· 현지 언론은 격상된 격리조치가 최소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항공운송 재개 연기 가능성(10.12)[9)]

· 약 8개월간의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10월 초에서 연기되어 10월 15일부터 재개 예정이던 국제항공운송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 제고

· “엄격한” 수준의 신규 봉쇄조치의 일환으로 10월 12일 발표된 행정명령(DNU: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 및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연장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8개월 이상 하늘 길을 막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면서 중남미에서도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항공운송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임.

8) América Economía(2020.10.9), “Argentina registra récord de muertes en un solo día por Covid y estudia nuevas medidas de confinamiento,” https://www.americaeconomia.com/politica-sociedad/sociedad/(검색일: 2020.10.12).

9) América Economía(2020.10.13), “Argentina fija tercera fecha para reactivar vuelos comerciales en un escenario "muy complejo" para las aerolíneas,” https://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 (검색일: 2020.10.14).

○ 멕시코

– 백신 추가 구매 계약 체결(10.13)[10)]

· Astrazeneca(3,900만 명 분량), Pfizer(1,700만 명 분량), Cansino Biologics(3,500만 명 분량)와의 계약으로 2021년까지 1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

· 이미 멕시코는 국제백신동맹인 Covax에 참여하여 약 2,6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인데, 정부는 10월 9일 WHO가 후원하는 Covax 계획에 1억 5,990만 달러를 지불했음.

· 이번 추가 백신 확보로 빠르게는 12월, 늦어도 2021년 1/4분기에는 접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멕시코 백신프로그램에는 총 17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인데, Covax에 지불한 자금 이외에 연말까지 3억 2,100만 달러를 선지급할 예정임.

□ 재정 및 금융정책

○ 특이사항 없음.

10)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10.14.), " Mexico Signs Deals With Drug Companies for Covid Vaccines," p. 2.